KIEP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2021년 5월 14일 Vol. 4 No. 24 ISSN 1976-0507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전망

노윤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yjro@kiep.go.kr, Tel: 044-414-1143)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Tel: 044-414-1257)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특징
2. 주요 대응조치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2021년 3월 중순 이후 인도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는 2차 대유행을 겪고 있음.

- 인도는 5월 12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약 34만 명과 일일 사망자 수 약 4,200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334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5만 명에 이름.
-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상 및 의료 관련 장비, 의료용 산소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도 내 의료서비스 역량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 내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중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함.

▶ 인도 중앙정부는 백신과 치료제의 국외 반출 제한 및 의료용 산소 등 관련 장비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폭증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정부들은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3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11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제조용 원재료의 수출중단 조치를 시행하였고, 4월 22일에는 의료용 산소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약·정유·철강·원자력 등의 9개 산업을 제외한 산업용 산소 공급을 금지함.
- 주정부는 봉쇄조치 시행과 함께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인력 및 시설을 제외한 모임과 관련 시설의 운영중단 방침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한국·영국·러시아·파키스탄·EU 등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비 및 치료제 등의 물자를 공급하고 있음.

▶ 봉쇄가 재개됨에 따라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부채 확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인도의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4월에는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외국 자금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루피의 달러 대비 환율도 2020년 8월 이래 최고점을 기록함.
- 이에 여러 기관은 1/4분기에 발표된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하향 조정함.
- 한편 투자은행들은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각종 종교행사 허가 및 선거유세에서의 느슨한 방역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모디 총리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음.

▶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무상 ODA 확대가 필요함.

1.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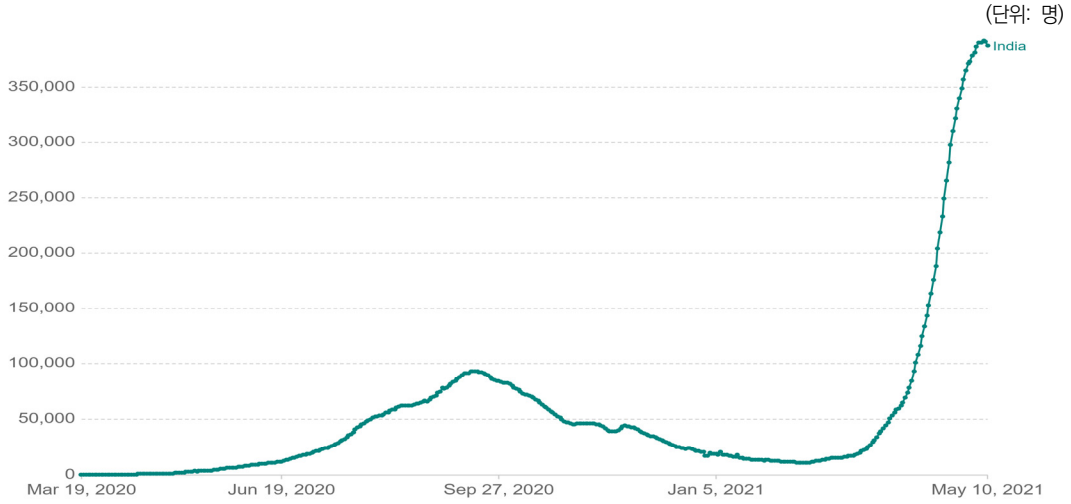
■ [1차 유행과 대응]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9월 일일 최대 9만 7,000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진정되어 2021년 3월 중순까지 1만~2만 명대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인도정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봉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당시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시설 및 교통 운영을 중단함.
- 이후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봉쇄 완화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음.
- 지역적·단계적 봉쇄조치의 지속 시행과 코로나19 검사역량 확대, 그리고 백신 접종 개시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목됨.[1)]

■ [2차 대유행 현황] 3월부터 인도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4월 2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 31만 명을 기록한 이후 30만~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인도는 5월 12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약 34만 명과 일일 사망자 수 약 4,200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334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5만 명에 이름.[2)]
- 4월 3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단일 국가에서 집계된 수치 중 최대 수준임.

그림 1.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주: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7일 평균을 나타낸 수치.
자료: Our World in Data-Indi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india(검색일: 2021. 5. 12).

1) Times of India(2021. 1. 6), "What has led to drop in Covid-19 cases in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what-is-causing-drop-in-covid-19-cases-in-india/articleshow/80118986.cms(검색일: 2021. 4. 16).
2) Worldometer-India,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india/(검색일: 2021. 5. 12).

■ [주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초반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특정 주에 집중되었던 반면 현재는 감염세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은 검사율, 통계적 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확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5월 12일 기준 주별 확진자 현황에서 마하라슈트라 주가 가장 많은 누적 및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수의 분포를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임(표 1, 그림 2 참고).

○ 2021년 4월 12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약 37%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던 양상과는 다르게 현재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3)]

- 인도의 코로나19 검사율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며, 무증상 감염자 및 병원 밖에서의 사망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된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4)]

○ 5월 10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100만 명당 약 21만 명으로, 이는 222개 국가 중 115위임.[5)]

○ WHO의 스와미나탄 수석과학자는 인도의 검사율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양성률을 보이는 것을 통해 볼 때 아직 인도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6)]

* 5월 10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22.3%에 이르며, 이는 미국의 5%, 한국의 1.9%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7)]

○ 또한 스와미나탄 수석과학자는 인도 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통해 볼 때 실제 감염자 수는 약 20~30배 많을 것으로 추정[8)]

○ 인도정부의 자문 과학자인 비디야사가르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감염자 수는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보다 약 50배 많을 것으로 추정[9)]

---

3)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India(2021. 4. 12), "Near 20 Lakh doses given on Day 1 of TIKA UTSAV pushes Cumulative Coverage to 10.45 crore. India's average doses per day cross 40 Lakh mark, continues to be highest globally. 10 States Contribute 81% of the Daily New Cases. 70.16% of Active Caseload concentrated in 5 States."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11104(검색일: 2021. 5. 10).

4) BBC(2021. 5. 2), "India coronavirus: New record deaths as virus engulfs India,"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6961940(검색일: 2021. 5. 10).

5) Worldo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ies(검색일: 2021. 5. 10).

6) CNN Philippines(2021. 4. 27), "WHO chief scientist warns India's COVID-19 cases are significantly underreported," https://cnnphilippines.com/world/2021/4/27/WHO-chief-scientist-cases-in-India-underreported.html(검색일: 2021. 5. 10).

7) Our World In Data – The Share of COVID-19 tests that are positive,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ositive-rate-daily-smoothed?tab=chart&country=KOR~IND~USA~GBR(검색일: 2021. 5. 12).

8) CNN Philippines(2021. 4. 27), "WHO chief scientist warns India's COVID-19 cases are significantly underreported," https://cnnphilippines.com/world/2021/4/27/WHO-chief-scientist-cases-in-India-underreported.html(검색일: 2021. 5. 10).

9) Reuters(2021. 4. 3), "India coronavirus cases may peak next week - govt adviser,"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india-peak-int-idUKKBN2CH1PZ(검색일: 2021. 5. 7).

표 1. 인도 주별 인구 및 확진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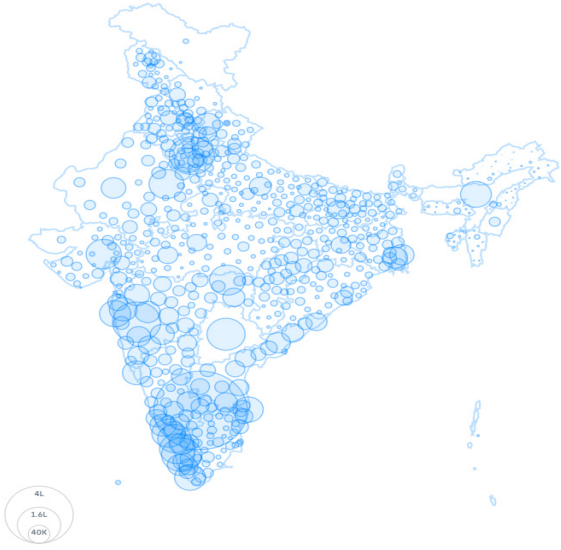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인구	누적 검사자 수	확진자 수	
			누적	신규
마하라슈트라 주	123,144,223	29,848,792	5,179,929	40,956
카르나타카 주	67,562,686	27,258,568	2,013,193	39,510
케랄라 주	35,699,443	17,272,376	1,967,406	37,290
우타르 프라데시 주	237,882,752	43,404,184	1,545,212	20,445
타밀 나두 주	77,841,267	24,310,932	1,438,509	29,272
델리	18,710,922	17,949,571	1,348,699	12,481
안드라 프라데시 주	53,903,393	17,514,937	1,322,934	20,345
웨스트벵골 주	99,609,303	11,099,069	1,032,740	20,136
차티스가르 주	29,436,231	7,847,328	873,060	9,717

주: 인도는 28개의 주와 9개의 연방 직할시로 구성, 확진자 수는 5월 12일 기준.
자료: 인구는 Statistictimes(2020. 5. 13), "List of India states by populations," https://statisticstimes.com/demographics/india/indian-states-population.php(검색일: 2021. 5. 10); 누적 검사자 수 및 확진자 수는 https://www.covid19india.org/(검색일: 2021. 5. 12).

그림 2. 인도의 행정구역 및 주별 확진자 수 현황

자료: https://www.doopedia.co.kr/index.do(검색일: 2021. 5. 12).



주: 가장 큰 원은 40만 명을 나타냄.
자료: https://www.covid19india.org/(검색일: 2021. 5. 12).

■ [의료서비스 현황] 급격한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로 인한 인도 내 의료서비스 역량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델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병상 및 의료 관련 장비, 의료용 산소 등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현재 인도가 의료서비스 붕괴의 기로에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10)]

○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병상 및 중환자실(ICU), 의료용 산소 등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원 밖의 장소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11)]

10) CNN(2021. 4. 21), "India's health care system close to collapse," https://edition.cnn.com/2021/04/21/world/coronavirus-newsletter-intl-04-21-21/index.html(검색일: 2021. 5. 10).
11) BBC(2021. 4. 21), "Covid-19 in India: Why second coronavirus wave is devastating,"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6811315(검색일: 2021. 5. 10).

○ 일부 지역의 암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약품 및 장비가 기존 거래 가격 대비 최소 3배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표 2 참고).

○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기 위한 화장터 역시 24시간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12)13)]

* 현재 델리는 하루에 평소 대비 약 10배에 이르는 100~120구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임시 화장터로 이용하거나 임시 화장터를 건설해 화장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표 2.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가격 현황

(단위: USD)

물품	기존 거래 가격	현재 암시장 거래 가격
산소통[14)] (50L)	$80	$660~1,330
산소 농축기	$330~930	$2,000~2,660
렘데시비르[15)] (100mg)	$12~53	$330~1,000
토실리주맙[16)] (400mg)	$540	$2,000~4,000
파비플루[17)] (17정)	$15	$66~133

자료: emerics(2021. 5. 6), 「인도의 코로나19 폭증과 대응현황」,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560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검색일: 2021. 5. 10)(원본 출처: BBC(2021.4.27.), "Covid-19 in India: Patients struggle at home as hospitals choke,"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6882167(검색일: 2021. 4. 30)).

■ [주요 원인] 인도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느슨해진 방역조치와 함께 인도발 이중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목되고 있음.

- 1, 2월 동안 인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1만~2만 명대를 유지하였으며, 인도 내 백신 제조 및 접종 시작을 계기로 3월 초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가운데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됨.

○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힌두교 축제인 '쿰브 멜라(Kumbh Mela)'에는 하루 최대 5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방역대책이 부재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18)19)]

○ 3월에 진행된 힌두교 봄의 축제 '홀리(Holi)'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에서 단행되었으며, 이 역시 적절한 방역수칙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20)]

12) CNN(2021. 5. 1), "As India's crematoriums overflow with Covid victims, pyres burn through the night," https://edition.cnn.com/2021/04/29/india/india-covid-deaths-crematoriums-intl-hnk-dst/index.html(검색일: 2021. 5. 10).
13) 힌두교는 장작으로 쌓은 제단 위에서 화장을 하는 전통이 있음.
14) 의료용 산소는 호흡기 질환 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약 20%의 코로나19 환자는 혈중 산소 농도 감소를 경험함.
15) 본래 에볼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됨.
16) 본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이나,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됨.
17) 인플루엔자 A와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약품임.
18) CNN(2021. 4. 12), "Millions of Hindu pilgrims head to the Ganges River as India's daily coronavirus cases continue to surge," https://edition.cnn.com/2021/04/12/india/india-covid-kumbh-mela-crowd-intl-hnk-scli/index.html(검색일: 2021. 5. 6).
19) 쿰브 멜라는 성스러운 강물에서 목욕 등의 의식을 거행하여 회개와 더불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네스코와 유산-쿰브 멜라, https://heritage.unesco.or.kr/%EC%BF%B0%EB%B8%8C-%EB%A9%9C%EB%9D%BC/(검색일: 2021. 5. 9).

○ 3월부터 4개 주와 1개의 직할시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여당인 BJP의 승리를 위해 대규모 선거유세를 약 50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당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21)]

- 인도 현지 연구자들은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이중변이 바이러스를 지목함.[22)23)]

○ 2020년 말 처음 학회에 보고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B.1.617'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약 20%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체 효능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짐.[24)]

○ 이중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나온 코로나19 백신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번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더욱 어려워 보임.

○ 이중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된 주들은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웨스트벵골, 구자라트, 차티스가르 등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지역임.

○ 이중변이 바이러스는 특히 젊은 층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4월까지 45세 이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층의 감염 위험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됨.

2. 주요 대응조치

■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주정부는 각각 긴급명령 및 봉쇄조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백신과 치료제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산소를 비롯한 관련 장비의 확보를 위해 긴급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인도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3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4월 11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제조용 원재료의 수출중단 조치를 시행[25)26)]

○ 인도의 주요 병원에서는 원격 진단, 약품 배달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 확진자를 위한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주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27)]

---

20) APnews(2021. 3. 29), "Indias gather for Holi celebrations as virus cases surge," https://apnews.com/article/india-holi-celebrations-coronavirus-surge-67d581dabaf885a4be66dd03669f9140(검색일: 2021. 5. 10).
21) Financial Times(2021. 5. 3), "India's ruling BJP suffers setback in state elections," https://www.ft.com/content/cbd82f08-edad-4822-82fa-f4ae3416467f(검색일: 2021. 5. 10).
22) BBC(2021. 5. 4), "India Covid: Government says new variant linked to surge,"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7004764(검색일: 2021. 5. 7).
23) Forbes(2021. 5. 6), "India CDC says Covid Surge Is Linked To B.1.617 Variants," https://www.forbes.com/sites/jvchamary/2021/05/06/indian-coronavirus-crisis-variant/?sh=51e3b99151cc(검색일: 2021. 5. 7).
24) Bloomberg(2021. 4. 16), "There's a New Virus Variant in India. How Worried Should We B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16/india-has-a-double-mutant-virus-variant-should-we-be-worried(검색일: 2021. 5. 11).
25) BBC(2021. 3. 24), "Coronavirus: India temporarily halts Oxford-AstraZeneca vaccine exports,"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6513371(검색일: 2021. 5. 11).
26) Reuters(2021. 4. 11), "India bans exports of anti-viral drug Remdesivir as COVID-19 cases surge,"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bans-exports-anti-viral-drug-remdesivir-covid-19-cases-surge-2021-04-11/(검색일: 2021. 5. 11).
27)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2021. 4. 23), 「인도 2차 코로나 확산 관련 입원 치료 안내」,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807/view.do?seq=13462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2021. 5. 10).

○ 인도정부는 4월 말 의료용 산소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9개의 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의 산소를 의료용으로 전환하고, 산소 관련 장비의 조달 및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계획 발표[28][29][30]

○ 모디 총리는 M. M. 나라버네(Naravane) 육군 참모총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군의관 차출 △임시병원 구축 △국군병원 개방 △의료용 산소장비 운반 등 군사력 동원방안 논의[31]

○ 5월 2일 인도 재무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침 발표[32]

* 본 방침은 체납된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기존의 18%에서 9%로 낮추고,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을 포함

○ 5월 3일 인도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6월 30일까지 해외에서 기부 받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IGST)를 면제하겠다고 발표[33]

- 인도정부는 2021년 1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주정부는 코로나19 앱 출시 및 사용 권장, 백신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2021년 8월까지 3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백신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2월에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34]

* 일일 평균 백신 접종 횟수는 3월 350만 명에서 4월 160만 명으로 감소[35]

* 인도에서는 현재 약 3,400만 명이 2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총인구의 약 2.5%에 해당[36]

○ 인도정부는 'Aarogya Setu', 'Chatbot' 등 코로나19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앱을 출시하여 사용을 권장[37]

○ 5월 1일부터 18세 이상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CoWin' 플랫폼 또는 'Aarogya Setu' 앱을 통해 접종 신청 가능[38]

○ 또한 인도정부는 최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Sputnik V)'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추가적으로 '자이더스 카딜라(Zydus Cadila)', '바이오로지컬 E(Biological E)' 등 백신 제조사의 긴급사용 승인을 고려하고 있음.

---

28) 9개의 예외 산업은 주사액 보관용기, 제약, 석유 정제, 철강, 원자력, 산소 실린더 제조, 폐수 처리, 식품 및 정수, 각 주정부 승인 공정 산업임.
29)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India(2021. 4. 18), "Union Government takes Steps to boost supply of Oxygen to Hospitals. Industrial Oxygen limited to 9 Industries. Special 'Oxygen Express' Trains tun through Green Corridors for Transport of Liquid Medical Oxygen," https://www.pib.gov.in/PressReleseDetail.aspx?PRID=1712590(검색일: 2021. 5. 10).
30) The Economic Times(2021. 5. 5), "Govt eases procedure for import of oxygen cylinders, cryogenic tanker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govt-eases-procedure-for-import-of-oxygen-cylinders-cryogenic-tankers/articleshow/82411843.cms(검색일: 2021. 5. 10).
31) Prime Minister's Office, Government of India(2021. 4. 29), "PM reviews Army's preparedness & initiatives for Covid management,"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14810(검색일: 2021. 5. 10).
32)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21. 5. 2), "Government announces various relief measures for taxpayers under GST law in view of severe COVID-19 pandemic,"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15502(검색일: 2021. 5. 7).
33)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21. 5. 3), "Ad hoc Exemption from IGST on imports of specified COVID-19 relief material donated from abroad,"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15668(검색일: 2021. 5. 7).
34) QUARTZINDIA(2021. 5. 6), "India's Covid-19 vaccination program is alarmingly behind schedule," https://qz.com/india/2004984/how-long-until-indians-get-vaccinated/(검색일: 2021. 5. 12).
35) QUARTZINDIA(2021. 5. 6), "India's Covid-19 vaccination program is alarmingly behind schedule," https://qz.com/india/2004984/how-long-until-indians-get-vaccinated/(검색일: 2021. 5. 12).
36) Our World in Data – Coronavirus Vaccinations,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IND(검색일: 2021. 5. 10).
3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in India," Vol. 1, No. 6.
38) Pragativadi(2021. 4. 21), "COVID Vaccine For Above 18 Yrs: Here's How to Register," https://pragativadi.com/covid-vaccine-for-above-18-yrs-heres-how-to-register/(검색일: 2021. 5. 10).

- 지방의 주정부들은 야간 통행금지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실정에 맞는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표 3 참고).

○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 인력 및 시설을 제외한 모임과 관련 시설의 운영 중단을 발표함.

○ 대부분 주에서는 필수품 구매를 위한 활동 및 배달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봉쇄조치가 발표되자 식료품점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짐.[39]

■ [주요국의 지원] 인도정부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등에서 관련 물자에 대한 공급 지원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은 쿼드(Quad) 협력국인 인도 지원에 가장 먼저 나선 국가 중 하나이며, 4월 중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음.[40]

○ 이번 성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000만 회분) △렘데시비르(2만 개) △신속 진단 키트(100만 개) △N95 마스크(1,500만 개) △산소 실린더(1,100개) △산소 농축기(1,700개) 공급 등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지원을 포함

○ 또한 미국정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문가들을 통해 코로나19 감시 및 역학, 유전자 분석 및 모델링을 위한 생물정보학, 감염 예방 및 제어 등의 분야에서 인도 전문가들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인도 백신 제조업체인 '바이오로지컬 E(Biological E)'에 2022년 말까지 약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조하기 위한 자금 지원 약속

- 중국정부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왔으나, 인도 측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음.[41]

○ 그럼에도 5월 10일 중국은 중국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에 산소 발생기(100대), 호흡기(20대) 등 관련 장비와 함께 약 100만 달러의 기부금 전달[42]

- 한국정부는 5월 9일 1차적으로 산소 발생기(230대), 산소통 및 산소 조절기(200개) 등을 인도 적십자사에 전달하였으며, 추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음.[43]

- 이 외에 영국·러시아·파키스탄·EU 등의 국가들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비 및 치료제 등의 물자 공급을 통해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39) The Economic Times(2021. 4. 21), "Delhi: Lockdown triggers another panic buying,"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delhi-lockdown-triggers-another-panic-buying/articleshow/82154640.cms(검색일: 2021. 5. 10).
40) The White House(2021. 4. 28),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Delivers Emergency COVID-19 Assistance for Indi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delivers-emergency-covid-19-assistance-for-india/(검색일: 2021. 5. 7).
41) CNN(2021. 4. 28), "China offered Covid aid to India while US dragged its feet, but Delhi isn't that keen," https://edition.cnn.com/2021/04/28/china/china-india-covid-relief-mic-intl-hnk/index.html(검색일: 2021. 5. 10).
42) Hindustan Times(2021. 5. 10), "Equipment, $1 million Covid-19 aid sent to India via Red Cross: China,"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equipment-1-million-covid-19-aid-sent-to-india-via-red-cross-china-101620605970151.html(검색일: 2021. 5. 10).
43) 외교부(2021. 5. 7), 「정부, 인도에 코로나19 대응 물품 긴급 지원」,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164(검색일: 2021. 5. 10).

표 3. 주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조치 내용 및 시행 기간

구분	주요 내용	시행 기간
마하라슈트라 주	•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통행금지 • 필수 업종 및 예외 시설을 제외한 쇼핑몰, 영화관, 음식점, 술집, 교회 등의 시설 폐쇄 * 필수 업종은 의료기관, 식료품점, 대중교통, 외교공관 등	4월 5일~5월 15일
케랄라 주	• 치안·보건 관련 서비스 및 인력은 예외 • 농업·금융 관련 활동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적 운영 • 식료품점·통신 등 지정된 활동을 제외한 상업활동 중단 * 식료품점은 배달이 장려되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5월 8일~5월 16일
카르나타카 주	• 기존에 예정되었던 비행기 및 기차를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 운행 중단 • 응급 상황을 제외한 릭샤·택시 등 금지 • 교육·문화·종교 등의 모임 및 시설 이용 금지 * 온라인 수업 진행 • 호텔은 이용이 금지되며,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 * 음식 배달 시 도보만 허용 • 식료품 및 생필품점은 운영시간 제한	5월 10일~5월 24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	•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통행금지 • 모든 교육·정치·문화·종교 등의 모임 및 시설 이용 금지 • 주 외부와 내부에서의 생필품 운송은 제한 없음 • 결혼식과 장례식은 각각 최대 50인과 20인까지 참석 허용 • 사무실 근로자 및 대중교통 이용 인원 50% 이내로 제한 • 제조업·의료업·인터넷 서비스 종사자는 E-pass 없이 이동 및 활동 허용 • 필수적인 서비스 운영자·백신 접종 관련 활동 등의 경우 통행금지 예외	4월 30일~5월 17일
델리	•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 결혼식은 50인, 장례식 및 임종은 20인까지 참석 제한 • 대중교통 이용객을 좌석의 50%로 제한 • 교육·정치·문화·종교 모임 및 시설 이용 금지 • 스타디움 내 무관중 경기 허용 • 연방정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보건·치안·행정·외교 등 관련 종사자는 통행금지 예외 • 호텔 연계를 통해 병상 2,394개 확보	4월 19일~5월 10일
웨스트벵골 주	• 부분적 봉쇄조치 시행 • 문화·종교 모임을 제외한 공개 집회 금지 • 결혼식 등 가족 모임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50인까지 참석 허용 • 공사·사기업·공장 등의 인원 50% 이내로 제한 • 주 내의 기차는 운행을 중단(5.5~5.19)하며, 이외 대중교통은 50%로 감축 • 주 외부에서 진입 시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화	4월 30일~ 중단 발표 시까지
하리아나 주	• 교육·정치·문화·종교 모임 및 시설 이용 금지 • 식료품 및 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배달만 가능 • 결혼식은 실내 30인 및 실외 50인까지, 장례식은 20인까지 참석 허용 • 교통서비스 제한적 운행 • 연방정부 공무원을 비롯한 치안·농업·보건·금융·건설 등 관련 종사자는 통행금지 예외	5월 1일~5월 17일
라자스탄 주	• 결혼식 금지 및 결혼증명서 발급 중단 * 10인 이하의 가정 및 실내 결혼식은 허용 • 종교시설 폐쇄 • 주 내에서의 상품 운송 허용 • 건설·생산 취급 상점은 운영 허용 • 의료 및 응급 서비스를 제외한 이동 금지 • 주 외부에서 진입 시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화	5월 10일~5월 24일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주를 위주로 선정.
자료: 각 주정부 홈페이지 및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공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주요국 대응]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현황 파악 및 관련 물품 전달을 통해 인도에 주재하는 자국 교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 주재 기업들은 재택근무 실시 및 근로 인원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 [미국] 미국정부는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유한 가운데, 인도와 연관이 있는 미국기업들은 인도에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44]

○ 미국정부는 주재원 가족의 출국을 승인하였으며, 주인도 미국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의 출국 허가 여부 역시 검토 중임.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용 산소, 병상 등이 부족하여 자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함.

- [한국] 인도 주재 한국기업들 역시 재택근무 및 인원 감축을 시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45]

○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기업들은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주재원 가족의 귀국을 지원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인도발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호주는 인도에 체류 중이거나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귀국을 금지함.

○ 현재 인도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란, 쿠웨이트, 타이완, 인도네시아, 네팔, 이스라엘,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UAE, 오만 등임.[46]

○ 호주정부는 인도 체류 자국민이 입국금지 방침을 어길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6만 호주달러(약 5,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함.

- 현재 인도 내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이 특별항공편으로 귀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14일 격리의무 시행을 통해 이중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할 예정임.

○ 5월 4일 남부 첸나이에서 현대차 주재원을 포함한 교민 172명이 귀국한 후, 2차로 7일 벵갈루루에서 교민 203명, 9일 뉴델리에서 한국기업 관계자 164명 등이 특별 항공기편으로 귀국

○ 5월 4일 기준 국내 인도발 이중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3명으로 집계

3. 평가 및 전망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봉쇄 조치가 재개되면서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부채 확대 등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인도의 경제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2020년 4/4분기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 회복의 조짐을 보였고, 2021년 1/4분기 약 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여파로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됨.

44) Indiatoday(2021. 4. 29), "US asks citizens to leave India as soon as possible amid surge in Covid-19 cases,"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us-leave-india-surge-covid-19-cases-travel-advisory-coronavirus-americans-1796179-2021-04-29(검색일: 2021. 5. 11).
45) 서울경제(2021. 4. 27), 「'코로나 쓰나미' 삼성 현대차 등 인도 진출 韓 기업들 패닉」,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YAZQY1(검색일: 2021. 5. 12).
46) Hindustan Times(2021. 5. 4), "Covid-19 travel ban: These countries have restricted flights to and from India,"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covid19-travel-ban-these-countries-have-restricted-flights-to-and-from-india-101620125693859.html(검색일: 2021. 5. 7).

- 지난 4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가 올해 신흥개도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들은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인도 중앙은행(RBI)과 세계은행은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0.5%와 10.1%로 전망함.

○ 스위스 투자은행인 유비에스(UBS)는 기존 11.5%에서 10%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10.9%에서 10.5%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11.8%에서 10.2%로, JP 모건(JP Morgan)은 13%에서 11%로,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인도 신용평가기관인 케어 레이팅스(Care Ratings)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9%에서 10.2%로 하향 조정함.

- KIEP는 2021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도 내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47]

- 최근 인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인도에서 외국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번 4월에는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자금 순유출을 기록함.[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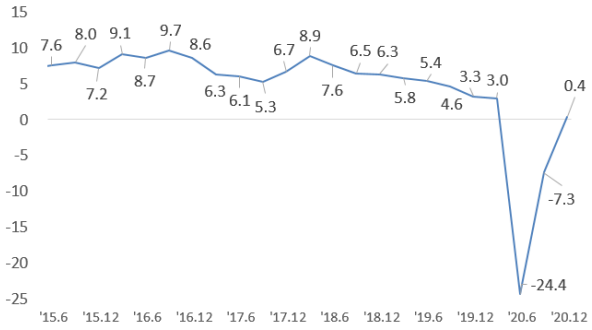
○ 인도 국립증권보관기관(NSDL)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인도 주식시장 내 해외 기관투자자의 자금 흐름은 11억 달러의 순유출 기록하였고, 5월에도 순유출을 기록 중[49]

○ 인도 통화인 루피의 달러 대비 환율은 4월 19일 기준 75.14까지 상승한 가운데, 2021년 4월에는 2020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50]

- 4월 인도의 실업률은 전월 6.5% 수준에서 8% 수준까지 상승함.[51]

그림 3. 인도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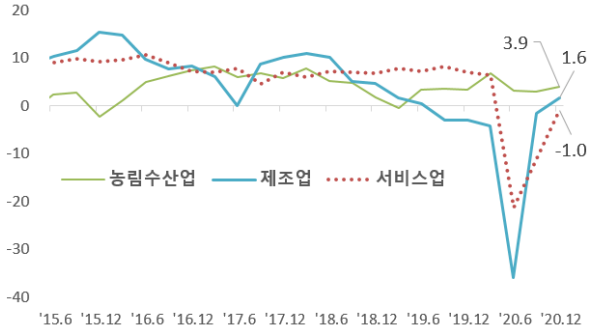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1. 4. 8).

그림 4. 인도의 분기별 산업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1. 4. 8).

47)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9, p. 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Financial Times(2021. 4. 19), "India's rupee tumbles as new Covid wave threatens recovery," https://www.ft.com/content/e81875ef-4c78-4f63-b53c-e8458688f6b2(검색일: 2021. 5. 7).
49) Mint(2021. 5. 7), "FIIs dump bank, oil&gas and metal shared the most in April," https://www.livemint.com/market/stock-market-news/bank-oil-gas-and-metals-shares-sold-most-by-fiis-in-april-11620310065929.html(검색일: 2021. 5. 8).
50) 5월 10일 기준 현재 환율은 75.53임. Bloomberg(검색일: 2021. 5. 10).
51) The Economic Times(2021. 4. 29), "Unemployment rate likely to be 8% compared to 6.5% in March in India: CMIE,"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unemployment-rate-likely-to-be-8-compared-to-6-5-in-march-in-india-cmie/articleshow/82309759.cms(검색일: 2021. 5. 7).

그림 5. 인도 달러 대비 루피 환율

(단위: INR/USD)

자료: CEIC(검색일: 2021. 5. 12).

그림 6. 인도 BSE Sensex 30

주: Sensex 30은 인도의 대기업 30개로 구성된 경제지수임.
자료: https://www.investing.com/indices/sensex-historical-data(검색일: 2021. 5. 12).

■ 투자은행들은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경기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확산세가 본격화된 4월 여러 경기지표가 악화되었으나, 5월에는 반등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임.

○ IHS Markit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동지수는 4월 55.5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3월의 55.4에서 소폭 상승한 것임.[52)]

○ 인도의 주식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0년 3월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확산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약세를 보이던 인도 루피화도 5월 들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52) The Wall Street Journal(2021. 5. 12), "As India Hunkers Down to Fight Covid-19, Its Wounded Economy Braces for More Pain," https://www.wsj.com/articles/as-india-hunkers-down-to-fight-covid-19-its-wounded-economy-braces-for-more-pain-11620817203(검색일: 2021. 5. 12).

- 코로나19 재확산이 인도의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의 바탕에는 인도의 백신 생산 능력에 대한 믿음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한 기대가 있음.
  - ○ 인도는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자국 내 백신 생산 여력을 갖추고 있어, 백신 접종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번 확산세를 통제하고 집단면역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인도정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추가 부양책을 준비 중이며, 인도중앙은행은 경기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임.

■ 한편 인도의 보건 전문가들은 인도 내 2차 대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6월 말 감염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현재 확산세가 유지 혹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등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음.

- 5월 7일 정부 자문과학자인 비디야사가르 박사가 발표한 코로나19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번 2차 대유행은 5월 7일의 정점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6월 말에는 2만 명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53)]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혹은 이후 3차 대유행의 발생 가능성 등을 언급함.
  - ○ 인도 과학원(Indian Institute of Science)에서 발표한 모델에 따르면, 현재의 감염세가 유지된다면 6월 11일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40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54)]
  - ○ 전염병 학자인 지리다하 바부는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인도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55)]
-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인도정부가 전국적 봉쇄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함.[56)]

■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때이른 기대로 방역이 느슨해져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다는 불만으로 모디 총리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음.[57)]

- 2월 말부터 진행된 지방의회 선거 및 쿰브 멜라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실질적 방역대책이 부재하여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됨.
  - ○ 모디 총리는 주정부 선거에서 여당인 BJP의 승리를 위해 대규모 선거유세 연설을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당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 특히 모디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웨스트벵골 주에서 50차례가 넘는 유세 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선거 유세장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53) Bloomberg(2021. 5. 7), "India's Modeling Has Covid Outbreak Peaking in Coming Day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5-06/india-s-modeling-has-covid-outbreak-peaking-in-coming-days(검색일: 2021. 5. 11).
54) Mint(2021. 5. 7), "PM Modi's advisers see Covid-19 outbreak in India peaking in coming dayes," https://www.livemint.com/news/india/pm-modi-s-advisers-see-covid-19-outbreak-in-india-peaking-in-coming-days-11620346908651.html(검색일: 2021. 5. 12).
55) Indiatoday(2021. 5. 5), "Covid 3rd wave inevitable in India; can't predict its timing, scale: Govt's chief scientific advisor," https://www.indiatoday.in/coronavirus-outbreak/story/covid-3rd-wave-inevitable-in-india-can-t-predict-its-timing-scale-prof-vijay-raghavan-1799211-2021-05-05(검색일: 2021. 5. 11).
56) Yahoonews(2021. 5. 10), "Fauci urged India to impose a national lockdown as its COVID-19 crisis worsens. So far, Prime Minister Modi has refused," https://news.yahoo.com/dr-fauci-urged-india-impose-134735227.html(검색일: 2021. 5. 11).
57) 인도국민당 혹은 바라티야 자나타당(Bharatiya Janata Party)은 약 1억 8,0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힌두근본주의, 보수주의, 대중주의 등을 주요 이념으로 추구함.

○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디 총리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으며, 트위터에서는 '#ModiResign', '#ModiMadeDisaster' 등의 해시태그가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함.

- 3월 말부터 시작된 지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BJP는 5개의 지역 중 3개의 지역에서 만족스러운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특히 모디 총리가 공을 들인 웨스트벵골 주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 BJP는 이번 선거를 통해 웨스트벵골에서 200석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77석밖에 확보하지 못함.

○ 현재 모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약 67%로, 2014년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58]

■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인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무상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와의 국제적 연계 및 협력 체제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의약품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 및 지속적인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KIEP

58) FORTUNE(2021. 5. 3), "Narendra Modi's popularity once seemed unassailable. Not anymore," https://fortune.com/2021/05/03/india-covid-narendra-modi-popularity-approval-rating-election-results/(검색일: 2021. 5. 9).